

社說

면죄부에 가려진 진실

최근 정부는 5월1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광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를 6월 중에 매듭짓기로 하였다. 광주 5.18기념재단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김대통령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초청함으로써 화해의 몸짓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한 시인이 '죽음의 공간이자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끌고 가는 생명의 공간'이라 이름붙였던 망월동 묘지에는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5.18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편히 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저간의 흐름과는 달리 지난 16일에는 전두환·노태우 사면 불가와 5·6공 잔재 청산'을 촉구한 '1980인 선언'이 발표되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기초한 '전·노재판은 쿠데타 과정의 인권유린 같은 대국민범죄(state crime)보다는 내란·반란 등 국가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the state)를 심판하는 자리로 변질'되었다는 박노현 교수(방송통신대)의 주장은 상당히 적실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전면적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전·노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범죄를 국가에 대한 쿠데타로만 한정하여 처벌하고,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은 '5월 광주'의 진실에 대한 전도된 역설일 뿐인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도 결국 이러한 전도된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면적 진실 규명'이란 당위적 과제를 회피하는 것은 5·6공 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집권세력에 의한 물리적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한 개선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도 집권세력은 경찰을 동원해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인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와 폭력적 진압으로 탄압하고 있다. 진정 우리가 좀더 나은 세계로 가고자 한다면 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망월동의 '과괴된 5월의 별'들에게 진정 '승리의 꽃다발'을 바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이 있어야 한다.

대동제, 신명나는 한마당되길

대동제의 기간이다. 대동제는 젊음과 패기를 발산하고 각자의 다양한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하는 실질적 대학문화의 자유로운 실험공간이다. 현실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의 이상과 자유의 목소리를 마음껏 발산하고 이를 실험해 봄으로써 변화의 새싹을 심는 과정인 것이다. 다른 의미로 그 동안의 쌓여 있던 묵은 감정의 풀을 허물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공유된 자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내의 구성원이 각자의 모습들을 쏟아내고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어 경험하는 이름 아래 하나된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의 대동제는 학생들만의 대동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경희의 하나됨은 교수와 학생과 교직원들의 하나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됨의 참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대동제 기간의 경희는 구성원이 각자의 다른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이다. 수업 문제로 교수와 학생은 그 골을 매우지 못하고,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대동제를 도와주느라 바쁘지만 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찌 신명나는 대동제가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대동제가 경희인 모두가 신명나는 하나됨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낼 때이다. 먼저 다가서서 교수와 교직원에게 함께 하기를 청할 용기, 이를 받아들일 용기, 모든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이 강의실을 벗어나서 하나 또다른 강의를 하고 들을 수 있는 용기, 학생들을 이끌고 한 잔의 막걸리를 마실 용기, 스스로 이 대동제를 대동제답게 만들 수 있는 주인이라 생각하고 행동할 용기, 이러한 용기가 모여서 하나됨의 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열린 대동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 있다고 할 것이다.

경희인이여! 용기의 맘치로 막혀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껏 만끽하자.

시론

5·18에 바라보는 전·노 사면 주장

바로 잡아야 할 거꾸로 가는 역사

박세길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연연합 대표)

지난해 10월초 노태우 전대통령이 연행되던날 공교롭게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부친에 있는 나의 집을 찾아 오셨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부모님은 느닷없이 나에게 축하하더니서 그토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니 결국 소원을 풀고 말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부모님은 노태우씨가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학생시절 부터 이른바 운동권의 일원이 되어 전두환 노태우 두사람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했던 사실을 떠올리신 것이다.

사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는 결코 짧은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 계층에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열사'라는 이름의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의를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확신해 준 쾌거라고도 볼 수 있다.

두 전직대통령이 왜 구속되어야 하고 중형에 처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도리어 두사람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목숨을 잃었던 것에 비하면 과연 구속만으로 그들의 죄값이 온전히 치루어질 수 있을지가 의문시될 뿐이다.



▲전·노 사면 주장에 분노하는 5·18 유가족들

(사진: 한겨레21)

두 전직대통령 조기사면은 국론 분열시킬수도 영남표와 보수층표를 얻어 보겠다는 계산

사안이 이렇할진대 구속되지 채 일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거론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는 집권여당인 신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의 배경에는 12월 대선에 대한 기대가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통해 영남표와 보수층 표를 보다 많이 얻어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물론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보

수층 및 영남표의 향방과 어떤 합수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 일부에서 나오는 발상은 영남 사람들 상당수에게는 심한 모욕감을 안겨 줄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발상 속에는 영남사람들은 민주주의적 대의보다는 철저하게 지역연고를 우선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

통령에 대한 사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굳이 몇가지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초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간주해 왔다. 즉 두사람에 대한 구속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최

소의 전제인 것이다. 역사적 과오는 그로 인한 대가가 얼마나 쓰러진 것인지 분명히 할 때만이 반목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단죄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행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친일파에 대한 단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 역사적 교훈을 잠시나마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국민화합을 이유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내세우지만 하등의 근거가 없는 억지일 뿐이다. 도리어 두 전직대통령을 조기에 사면함으로써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국민들 중에는 두 사람을 조속히 사면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두 사람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만큼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절대다수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사면논의는 숨을 죽이고 있는 사면요구를 표면화 시킴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을 유발시키고 말 것이다. 애써 끌어 부수려만 만드는 꼴인 것이다.

셋째 사면조치를 취하기 위한 두 전직대통령의 최소한의 자기반성이 없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국민앞에 큰소리를 쳤고 지금 이 순간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은 두사람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 격분했으며 그 때의 감정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을 사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PC 탈선 초래하는 '전화방' 문화

통신원

건전한 놀이공간 마련위해 사회적 관심 필요

최근 길을 가다보면 종종 '전화방'이란 간판이 눈에 띈다. 여자는 무료, 남자는 시간당 1만원이라는 광고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전화방'이 매우 음성적이고 퇴폐적인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 문화가 성행하고 변태적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이텔 이용자 최용우(ID: 9191AZ)씨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문화는 '마당문화'였다고 말한다. 어느 집에 잔치가 열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여 스트레소나 어색했던 관계를 풀어버리고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마당잔치였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사회가 각박해져 가면서 '마당문화'는 어느새 '방' 문화로 축소되어 버렸고 각 개인은 폐쇄된 공간을 지향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더 쉽게 탈선할 수 있다.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전화방을 찾는 사람들이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위

'폰섹스'라는 것이 이곳에서 만연하고 있다. 더우기 순수한 아이들이나 가정주부마저도 호기심에서 전화를 걸다가 어느새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한다.(ID: DONG112)

한편, 법적으로 어떤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타인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ID: OBSCOM) 음성적으로 성행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화방 문화도 건전하게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ID: WINE39A)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대화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없다면 중고등학생들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ID: JTB1197)

'전화방' 등의 폐쇄된 공간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사회가 음성화되어가는 세태를 반영한다 하겠다. 지금은 건전한 문화와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최홍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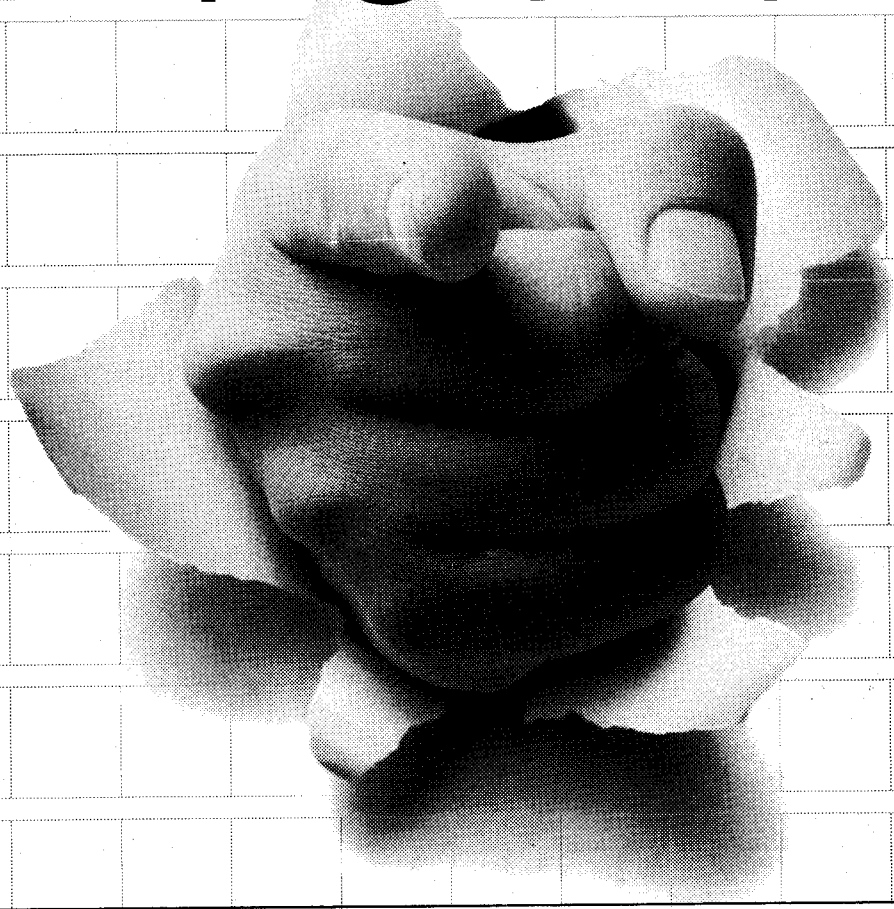


“이제는 어디로 가야하나?”

正道경영·초우량 LG

21세기 정보사회를 움직일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



제5회 전국 대학(원)생 정보통신논문 수상공모

1.응모자격

전국 각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전공불문)

2.공모주제

가.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논문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도 가능(소프트웨어 개발논문 포함)

나. 정보사회 구현에 관한 연구논문

예)①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산학협동체계

②정보사회 초기 구현을 위한 기업 또는 학계의 역할

3.논문분량

●A4용지 20매 내외

●요약문 A4용지 2매 내외 첨부

4.응모마감

1997년 9월 30일(우송시에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논문제출처

①(100-72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51

매일경제신문사 정보통신부(TEL: 2626-205)

②(150-7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서관 17층

LG정보통신(주) 홍보(TEL: 3777-2764)

6.심사

가.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관련업계를 망라한 사계의 권위자로

매일경제신문사가 위촉

나. 전체 응모논문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비통과 논문을

대상으로 본심 실시

7.입상자 발표

●1997년 10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8.시상

●대상(정통부 장관상) 1명:

상장,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금상 2명:(일반 1명, 기술 1명)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은상 2명:(일반 1명, 기술 1명)

상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동상 6명:(일반 3명, 기술 3명)

상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지도교수상 ○명:감사패, 상금 200만원

※시상식은 1997년 11월 4일(화)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9.기타

●입상자가 LG텔레콤 및 LG정보통신 입사를 희망할

경우 특전 부여(회사선정은 주취사가 결정)

●응모시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 제출

(신청서는 각 대학 학생처에 비치 예정임)

●수상논문집 발간(97년 12월)

●응모 논문은 주취사 소유에 의정

■주관: 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TV,

(주)LG텔레콤, LG정보통신(주)

■후원: 정보통신부

■협찬: 한국정보통신진흥회, 한국통신학회

LG텔레콤

LG정보통신